

친환경 축산관련 제품 소개의 장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성황리에 종료

글 | 김호진 기자(hj@chicken.or.kr)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신종플루’라는 악재 속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대전 KOTREX와 DCC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축산업 관련 170여개 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축산기자재 및 사료, 동물약품 등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각종 축산박람회가 취소되거나 규

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개최돼 자칫 분위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축산농가를 비롯 관련 업체, 학생, 일반 시민들 등 다양한 계층의 참관객 10만여명이 방문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9일 열린 개막식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위원장 이낙연 국회의원,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 대회장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장



동일 회장 등 축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장동일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의 축산 기술은 생산성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축산시설기계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는 한국의 축산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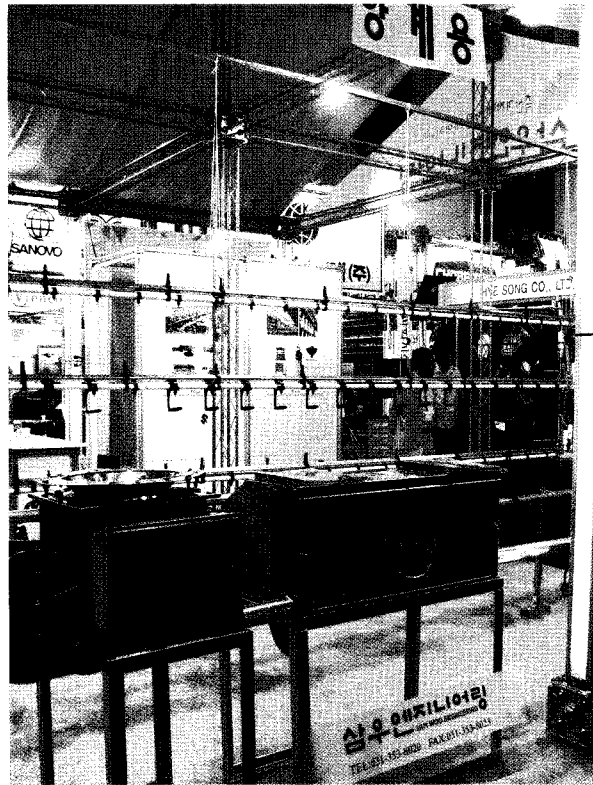
특히 이번 박람회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시장 입구에 열감지기 시스템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전시장 곳곳에 발판 소독조 설치하는 물론 손 소독제를 준비하여 참가업체와 참관객들 누구나 쉽게 관람도중 수시로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다양한 신기술·신제품 선보여

이번 박람회에는 출품 품목별로 전시관을 분류, 운영했으며 관람기간도 예년보다 하루 더 연장해 많은 관람객들이 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계분야에서는 우수전시업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삼우엔지니어링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삼우엔지니어링은 이번 박람회에서 디스크체인방식을 채택한 급이라인시스템을 선보였는데, 이 시스템은 기존 스트라켓이 디스크를 돌리는 방식이 아닌 체인고리를 돌리는 방식으로 디스크가 밀리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이 적용됐다.

또 (주)이레는 축분을 재활용해 자원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의 축산분뇨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전시업체로 선정돼 대상을 받은 삼우엔지니어링

자원화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축분연료를 사용해 타이머를 이용한 시간제어 자동운전방식으로 농가의 편의성을 더한 제품으로 농가의 실정에 따라 용량과 규모를 맞춤제작할 수 있다.

한편 (주)우성사료는 육계·산란계 제품 소개와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갯 머니 서비스’를 홍보했다. 이 서비스는 농장 성적의 올바른 평가와 개선, 수의질병 관리서비스 등 양계농가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양계오일백신 분야에서 국내 항원을 이용한 고기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고려비엔피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유전형 VII형 ND’는 물론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성 기관지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달구방 ABBN’’를 집중 홍보해 양계농가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우수전시업체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삼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안광덕)이 수상했으며, 우



우수전시업체로 선정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주)우성사료

수전시업체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은 (주)이레(대표이사 탁동수), (주)라이브맥(대표이사 김병관),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각각 수상했다.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대회장인 장동일 회장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외부적인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약 10만 여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방문했으며 참가업체별로 현장에서 계약 성사 및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업체로부터 기증받은 제품들의 자선경매금은 축산전공 대학생을 선발, 박람회 개최결과 보고회 때 전달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참여는 여전히 부족

이번 박람회는 ‘신종플루’라는 악재 속에서도 별 다른 문제점 없이 무사히 치러졌으나 여전히 ‘국제박람회’로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을 남겼다.

총 170여개 업체 중에서 해외 업체는 단 11개 업체에 불과해 외국 바이어들의 참관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

이 점은 그동안 국제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으로 올해도 ‘해외 바이어 참여 저조’라는 아쉬운 점을 남겼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식사장소’ 문제이다. 이 점은 2007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박람회 장소는 인근 주택가나 변화가에서 다소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 문제에 있어서 번잡함은 느낄 수 없을지 모르나 단기간 동안 많은 인원이 모인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주최 측에서 마련한 식사장소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날 주최 측은 옥외에 흰 천막을 치고 식사장소를 만들어 5천원대의 도시락을 판매했지만 점심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탓에 식사장소는 굉장히 혼잡했다. 또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냉방이 원활하지 이뤄지지 않아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참관객들은 전시관내 입점해 있는 식당가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는데 2층 식당의 경우 1만5천 원이나 하는 비싼 식대를 내고 식사를 해결해야만 했다.

한편, 2011년 예정된 제7회 대전국제축산박람회의 경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유사행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